



국내외 기독교학자들과 기독교대학 교류의 장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

편집부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는 2001년에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대학인 캘빈대학(Calvin College, Grand Rapids, MI)의 교수개발프로그램인 카이퍼 세미나(Kuiper Seminar)를 국내에 도입하여 한국 기독교대학 교수와 크리스천 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Calvin College의 강사지원과 고신대학교, 백석대학교, 한동대학교 등의 기독교대학들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연합활동으로 시작되었다.

제1회는 한동대학교 주관으로 “God’s Calling to Academic Work”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서울, 7.23~25, 2002), 제2회는 백석대학교 주관으로 “기독교인의 책임과 교육과정 개발”(천안, 12.14~16, 2004), 제3회는 고신대학교 주관으로 “21세기 기독교 고등교육의 역할과 도전”(부산, 6.19~21, 2006)의 주제로 개최되었

으며 캘빈대 교수와 외국의 석학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교수개발 세미나 형식(Faculty Enrichment Program)으로 진행되었다.

한동대학교 주관으로 “기독교대학교육 및 기독교문의 토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제4회 대회(경주, 6.15~16, 2009) 이후로는 대회의 명칭을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ICH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and Christian Scholarship)로 변경되었으며 학술대회의 형식을 도입하여 현재 기독교대학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독교적 연구와 교육의 성과를 나누었고 또한 교수개발세미나 강사도 캘빈대학을 비롯하여 유럽, 북미,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의 초청하여 학술대회가 강사 및 강좌(Speakers & Lectures)와 논문발표 및 토론(Papers & Discussion) 형식으로 진



행되었다. 제5회 대회(부여, 6.22~24, 2011)는 백석대학교 주관으로 “기독교대학의 사회적 책임”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앞으로 기독교학문과 교육을 추구하는 더 많은 국내 기독교대학들과 연합하여 학술대회를 운영하고 국내외 기독교학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진정한 기독교적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를 기독교대학들이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제5회 대회의 성과를 돌아보면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강화와 기독교학문 추구의 성과를 발표하며 국내외 기독교학문의 성과를 논의하고 국내외의 기독교학자들 간의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기독교 정체성의 회복에 열심이 있는 대학의 연합과 협력, 교류를 도모할 수 있었으며 국내외의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학문 운동 기관과의 연대하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 학술대회는 2013년 고신대학교 주관으로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연도	주관대학	공동주관대학	주 제
1회 2002	한동대	백석대, 고신대, Calvin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학문의 수행
2회 2004	백석대	고신대, 한동대, Calvin대	기독교인의 책임과 교육과정 개발
3회 2006	고신대	백석대, 한동대, Calvin대	21세기 기독교 고등교육의 역할과 도전
4회 2009	한동대	고신대, 백석대, Calvin대 (공동주최: 나사렛대, 평택대, 서울여대)	기독교대학교육 및 기독교학문의 토대
5회 2011	백석대	고신대, 한동대 (공동주최: 강남대)	기독교대학의 사회적 책임
6회 2013	고신대 (개최 예정)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 기초강연 요약문 1 기독교대학의 사회적 책임

두안 리트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내가 의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ies)'이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공동체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짊어져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과 행위(words and deeds)'에 균형을 이루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골 3:17).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우리의 행동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행동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아무 말 없이 전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그리스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 성경의 메시지를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없다. 성경의 '복음은 구두(口頭)적'(the Gospel is verbal) 이므로 우리가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말로 하는 증언이 중요하다. 예수님이나 그의 사도들 가운

데 어떠한 사람도 행동으로 '복음을 전한'적이 없었고 할 수도 없었다. 우리가 말없이 행위만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행위의 중요성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전도는 복음을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억압받는 사람들을 풀어 주기 위해 교회가 노력할 것을 주장하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여기에 편중(偏重)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구두증언(verbal witness)은 우리시대 문화로부터 쉽게 저항 받을 수 있지만 성경의 진리대로 교회가 이러한 구두증언을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보존해 갈 때 교회의 사명은 소진되지 않는다. 복음전도가 교회의 모든 사명이나 역할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은 교회의 독특한 소명으로 다른 어떠한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으며 교회의 전체적인 사명에 있어 가장 최고의 기반이 된다.

복음전도는 복음의 능력은 전하는 자들의 강함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복음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갖는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 복음을 선포할 수 없으나 우리의 행위는 우리를 주시하는 세상 앞에서 복음을 몸으로 구현하고 실현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나 연약함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힘은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증언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명확한 진리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복음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복음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방법과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수 있다.

복음은 말이 아닌 실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말로 나타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 복음을 보여주도록 자신들의 백성을 부르신다. 따라서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말과 행위 모두에 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 복음을 선포할 수 없으나 우리의 행위들은 우리를 주시하는 세상 앞에서 복음을 몸으로 구현하고 실현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말로 표현함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복음은 불가피하게 우리의 행동과 연관된다. 복음은 전해지는 것뿐 아니라 실천되어야 한다. 복음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만 하고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모든 행동들은 그러한 복음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구현되어야 하며 먼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점차 영역을 넓혀 우리의 사회적 의무의 첫 번째 범주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가족들에게 실지로 믿음의 행위를 보이며 믿는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사회전반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세계에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를 향한 교회의 이중적인 의무는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며 복음에 따라 행동하며 사는 것이다.